

북한개발소식

2025 JUL

07

통권 237호

이달의 주제

북한의 농업 정책과 식량문제

탈북민 수기

황폐한 그 땅의 소망, 그루터기(10)

북한뉴스

러 “北, 러에 공병·군사건설인력 6천명 파견키로” 외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의 농업 정책과 식량문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CONTENTS 2025 JUL

이달의 주제 :

북한의 농업 정책과 식량문제

- 권두칼럼 **01** 북한의 농업 정책과 식량문제
- 칼럼_1 **09** 박성열_ 김정은 정권의 식량정책 효과 평가: 가용량과 획득성 중심으로
- 칼럼_2 **17** 조충희_ 최근 북한의 농업 정책의 변화와 그 의미
- 칼럼_3 **22** 이민복_ 남한보다 2배 이상 농지를 가진 북한은 왜 굶주릴까
- 탈북민 수기 **27** 김열매 성도_ 황폐한 그 땅의 소망, 그루터기(10)
- 서평 **32** 북한의 여성
- 북한뉴스 **35** 러 “北, 러에 공병·군사건설인력 6천명 파견키로” 외
- 북한 기도 제목 **39** 북한의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



북한은 최근까지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경험해왔다. 유엔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2018~2020년 북한 전체 인구의 42.4%인 1천90만명이 영양부족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섭취 열량은 2천75kcal로 세계 평균(2천 950kcal)보다 30% 가까이 적었다.¹ 근래 북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절망 세대(식량이 없어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구를 이르는 말)의 이야기도 어느새 새삼스럽지 않게 되었다.

부족한 식량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자연스럽게 농업과 식량 생산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의식 때문인지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로 새로운 농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21년 새시대농촌강령 채택을 비롯하여 농업법(2020 개정), 농장법(2022 개정), 량정법(2021 개정) 등의 법률 정비 를 통해 농업 생산과 농촌 개발에 성과를 거두고자 시도하는 모습이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서민들의 식량 부족과 생활고의 소식이 여전하다. 특히 평양과 중앙 지역 대비 지방의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식량 접근권을 훼손시키는 요소는 무엇인지, 북한의 농업 정책의 변화가 북한의 식량 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¹ 유엔 "북한 주민 42%가 영양부족...필요한 열량 86%만 섭취", 연합뉴스 (2021. 11. 05), <<https://www.yna.co.kr/view/AKR20211105049500009>>

북한의 농업 정책의 변화: 생산에서는 자율성을, 유통에서는 통제를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변화한 북한의 농업 정책을 살펴보면 농업 생산에는 시장경제적 요소를 농장 운영에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면서, 식량의 유통에서는 당국의 장악력을 확대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농장의 자율성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개정된 농장법은 농장을 과거의 협동적 소유의 연합체가 아닌 “사회주의농업기업소”라는, 일종의 기업체로 정의하고 실제적인 경영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제는 농장의 생산활동에 대해 국가가 일일이 지도하기보다는 농장이 스스로 자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게 되었다.² 또한 양곡생산기관, 기업소, 단체 및 개인이 생산한 국가 수매 계획 외의 남은 양곡에 대한 교환 및 판매를 합법화하고, 대신 시장이 아닌 “영농물자교류소”를 통하여 영농물자와 교환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³ 이제 농장에서는 국가 수매 계획 외의 초과생산물을 가지고 영농물자나 연료 등을 해결해 농사를 짓게 되었다. 계획 초과분 양곡에 대한 판매를 합법화한 이러한 자율성 확대는 식량 생산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동시에 북한은 식량에 대한 국가의 장악력을 강화하고 있다. 개정된 양정법은 먼저 국가 수매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기관, 기업소 등이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 “부업지, 원료기지, 실습지 등에서 생산된 양곡”을 국가가 우선수매(14조)하도록 하였다. 해당 양곡은 국가 계획 외에 생산되는 식량 및 부산물이다. 이 물량의 상당부분이 시장 유통 등 비공식영역에서 유통되었는데 이것이 불법화된 것이다. 수매 방법도 국가의무수매와 함께 별도의 계약수매계획이 추가되어 국가양정사업소와 기관, 기업소 등이 계약을 통해 국가양정기관이 수매하도록 개정되었다. 양곡의 가공도 국가가 일원적인 권한을 갖도록 개정되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곡물의 국가 수매를 증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⁴ 이와 함께 양정법은 양곡판매소를 통해 식량을 분배하도록 규정하였다. 코로나19 전후 북한 당국이 국경에 대한 강도 높은 통제를 통해 비

공식 무역을 제한하면서 외부에서 도입되는 식량 대부분이 자연스럽게 국가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 여기에 더해 국내에서 생산된 식량에 대한 수매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그 유통도 시장이 아닌 국영 양곡판매소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식량의 공급과 유통 전반에서 국가의 장악력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장에서의 식량 거래에 대해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한동안 시장이 주가 되어 이루어졌던 식량 공급과 유통 전반을 다시금 국가가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⁵

특기할 만한 점은 북한이 농업과 식량 부분에서 시장 경제적 요소는 활용하면서도 시장 그 자체는 배제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장 경영에서의 자율성 확대와 여분의 농업 생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영농물자교류소는 시장 경제적 요소를 활용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주로 시장을 통해 거래되던 국가수매계획 외 생산분에 대해서 국가가 우선 수매하도록 하고 별도의 계약수매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점이나, 여분의 양곡을 거래할 수 있는 문은 열었지만 이를 시장이 아닌 영농물자교류소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한 점, 그리고 식량 공급망을 양곡판매소 중심으로 개편한 점 등은 시장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국가의 장악력을 확대하려는 일관된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의 농업 증산을 위한 정책은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인 관계로 현시점에 그 성과를 평가하기는 조심스럽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소곡의 생산량 증가 모습이 관찰되었다. 2024년 북한의 식량 수급 사정은 북부 지역 수해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정황이 확인된다.⁶ 북한 전문 매체 아시아프레스의 보도에 따르면 농장이나 농장원이 국가 계획량을 수행한 이후 남은 추가 식량을 공장이나 기업소와 정식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더 좋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국가 수매분 외의 식량 생산량을 늘리도록 농장



2 김일한(2023), “북한 농업법제 변화: 농장의 자율성 확대 vs. 정부의 시장개입 강화”, 한국동북아논총 28(3) (2023 Sep), pp. 171-172.

3 <북한특집>김정은이 시도하는 농정 개편의 실체는 무엇인가 (8) 농장이 직접 양곡 판매, 가격 제정까지... 새로 등장한 ‘영농물자교류소’는 무엇인가?, 아시아프레스 (2025.05.02.), <<https://www.asiapress.org/korean/2025/05/nk-economys/distribution-8/>>

4 김일한(2023), 앞의 글, pp. 176-178.

5 임수호(2023), 「북한 양곡판매제 복원 시도는 성공할 수 있을까?」,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434호 (2023. 5. 19).

6 김영훈 (2025), “2024년 북한 농업 동향과 2025년 전망”, 세계농업 2025 봄호, pp. 170-173.

원들의 생산 의욕을 고취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⁷

그렇지만 식량 유통 영역에서는 우려스러운 현상이 관찰된다. 정책 도입 이후 식량 생산 및 수급과는 별개로 지역에 따라 주민들의 식량 사정이 불안해지는 정황이 관찰되기 때문이다. 2024년 북한의 시장에서는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이상 현상이 나타났다. 식량 수급 사정이 소폭 개선된 정황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한 원인으로 국가의 곡물 구매 확대와 환율 급등에 따른 곡물 수입가격 상승의 영향이 지적된다.⁸ 이전 해인 2023년에는 여러 지역에서 식량난에 대한 심각한 소식들이 들려오기도 했다. 당해 2월에는 개성시에서 식량난으로 인한 아사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고위 간부가 두 차례 급파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다.⁹ 5월 황해남도에서 서해를 통해 보트로 귀순한 일가족은 일부 지역에서 인육 취식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북한 내 식량난이 극심하다고 전했다.¹⁰ 6월에는 BBC코리아가 데일리NK와의 합동 취재를 통해 북한에 굶주림으로 사망하는 주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부의 소식을 전하며 식량난의 심각성을 보도하기도 했다.¹¹ 식량의 절대량이 부족한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식량난이 발생한 가장 유력한 이유로는 북한 당국이 장악하기 시작한 유통망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서 지역에 따라 식량 부족 현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¹²

장기적 시각에서의 한계와 우려점들

전문가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현 북한의 농업 정책은 어느 정도 식량 생산 증가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인 개선을 이루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북한 당국이 자력갱생의 기초 속에서 집단적 농업 경영 및 생산 체제의 강화라는, 사회주의적 관리 강화의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

다. 북한은 열악한 관개 시설, 농자재와 농업투입재 공급의 부족, 농업 기술과 기자재의 부족 등에 고질적으로 시달려왔다.¹³ 비록 북한 당국이 지방발전 20×10 정책과 연계하여 농업 관련 기계나 물품 생산을 늘리고자 애쓰고 있지만, 자력갱생의 기초 속에서는 그간 북한 농업의 고질적 문제였던 농업 생산에 투입해야 할 자본재의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이다.

식량 분배 문제에 있어서도 양곡판매소를 중심으로 한 국가의 시스템이 시장에 비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평가가 나온다. 사실 시장을 통한 분배가 항상 효과적으로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식량은 거래되는 상품이 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필수품인 만큼 모든 주민에게 적절한 식량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시장에서는 이윤을 좇아 물자가 유통되다 보니 지역 간의 편차가 발생해왔다. 김인수, 강경일(2014)¹⁴은 철도와 도로망을 통한 각 지역 간의 사회적 유통망과 이를 통해 생산된 식량이 분배되는 비율을 조사하였는데, 연구에 따르면 신의주, 평성, 평양, 사리원, 해주는 사회적 유통망이 실제 거리보다 가깝게 나타났지만, 해산(양강도)과 청진(함경북도)은 상대적으로 흐름이 원활치 않았다. 이에 따라 식량 분배도 최초 유통이 시작된 지역과 관계없이 약 48%의 자원이 평양과 평남(평성) 지역으로 이동하는 구조를 보였지만, 자강(강계)과 양강(해산)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은 전체의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북한의 대표적인 곡창지대로 알려진 황남(해주)와 황북(사리원)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원이 전체의 10%에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식량 생산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이 지역에서 식량 부족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가 개입하여 식량 분배의 형평성을 높인다면 주민들의



〈북한의 양곡판매소 (사진=노동신문·뉴스1)〉

7 <북한특집>김정은이 시도하는 농정 개편의 실체는 무엇인가 (10) '농포'는 옛말, '농장원 인기 많다'는 주장도 새 정책에 기대감 있지만..., 아시아프레스 (2025.05.14.), <<https://www.asiapress.org/korean/2025/05/nk-economys/agreform-2/>>

8 김영훈 (2025), 앞의 글, 165-166.

9 "北 개성에 하루 수십 명씩 아사자... 김정은, 두 차례 간부 파견", 연합뉴스(2023.02.06),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6065400504>>

10 [단독] 서해NLL 탈북가족, '북한 극심한 식량난에 인육취식 소문', BBC코리아(2023.06.13), <<https://www.bbc.com/korean/news-65857970>>

11 북한 내부 주민과의 BBC 독점 비밀 인터뷰 '식량 부족해 이웃들 굶어 죽어', BBC 코리아(2023.06.15), <<https://bbc.com/korean/articles/cn3e4v9lmvro>>

12 통일부 "북한, 작년 10월 신앙곡정책으로 식량 분배에 문제", 연합뉴스(2023.02.17.), <<http://yna.co.kr/view/MYH20230217002000038>>

13 최우호(2022), "북한 식량 수급의 변화와 함의", 보건복지포럼 2022년 8월호, pp. 32-34.

14 김인수, 강경일 (2014), "북한의 사회적 유통망과 지역별 식량난", 통일정책연구 23(2), 33-54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양곡판매소의 판매 가격은 시장보다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어 잘만 작동한다면 민생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국가의 개입이 분배의 형평성을 향상하기보다는 오히려 저해하는 듯이 보인다. 먼저 분배의 주체인 북한 당국이 시장에 비해 더 평등한 분배를 실천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북한은 성분에 따른 개인별, 지역별 격차가 큰 사회이다. 그러다보니 식량 배분에 있어서도 핵심계층이 포진된 평양과 주요 도시, 그리고 군대와 군량미 확보 등이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의 위단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반면 성분이 좋지 않은 지방 및 외진 지역에 대한 분배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지방의 취약계층이 식량난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북한의 중앙과 지방의 식량 접근성 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소식들이 전해진다. 국가 주도의 식량 분배가 시장의 불평등 문제를 교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취약지역 및 계층에 대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뿐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한계도 지적된다. 국가의 식량 분배 시스템이 가지는 경직성이 주민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이다. 정책적으로 식량 공급에 대한 주민들의 국가 의존도를 상당히 높혀 놓았지만, 정작 국가의 공급 시스템은 그만큼 안정적이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지역과 시기에 따라 지역 양곡판매소에 충분한 식량 물량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¹⁵ 그렇게 되면 지역 주민들은 식량을 구할 곳이 마땅치 않다. 비록 양곡판매소에서 판매하는 식량의 가격이 시장에 비해 저렴하다 하더라도 물량이 없으면 결국 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가의 식량 수매가 강화되고 폐쇄적인 대외 정책 기조 속에서 비공식 무역을 통해 들어오는 식량의 양도 대폭 줄어들었다 보니 시장에서 거래되는 식량의 양도 한정적이다. 결국 시장의 식량 가격은 상당히 불안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2024년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식량 가격의 대폭적인 상승도 이러한 현상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¹⁶

이러한 문제는 충분한 식량 공급이 이루어지고 식량 물량이 넉넉해진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다. 과거 북한은 2005년 양곡전매

제를 시행했다가 물량 부족으로 실패한 전례가 있다. 그만큼 충분한 식량 물량 확보는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임이 분명하다. 국내 생산량을 갑자기 대폭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외부 도입량을 확대한다면 이를 매꿀 수 있다. 실제로 그간 식량 물가 안정화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식량이 상당히 기여해 왔다. 김규철(2021)¹⁷은 북한의 식량 물가가 안정되었던 2014년에서 2019년까지의 북한 장마당의 쌀 가격을 분석을 통해 해당 기간 북한의 식량 물가가 대중국 쌀 수입가격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외부로부터 식량 공급이 원활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식량 가격이 형성되고 거래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하지만 외부의 식량을 수입하는 데에는 상당한 외화 지출이 요구된다. 임수호(2023)¹⁸는 FAO와 농업진흥청의 자료를 근거로 북한의 식용 양곡 소요량을 충족하려면 매년 약 92만톤의 양곡이 도입돼야 한다고 계산하고, 이를 위해서는 매년 약 4.8억 달러를 양곡 구매에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그렇지만 북한이 이만한 외화를 식량 구매에 지불할 여력이나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대북 제재로 주요 품목의 수출이 제한되고 외화벌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핵과 무기 개발 및 유지, 그리고 대규모 국책 사업 등에도 막대한 외화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당국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외화 확보에 열을 올리고 국내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애쓰고 있다. 근래의 경제 정책 역시 주민들의 외부와의 거래를 제한하고 국가의 시스템 안에서 식량 및 물자를 구매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외화가 국가로 흡수되도록 유도하는 방향성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식량구매를 위해 매년 수억 달러의 지출을 감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개혁개방을 통한 근본적인 개선과 취약계층에 관한 관심이 절실

북한은 단기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러시아의 지원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 파병과 무기 판매를 통해 외화벌이 및 무기 기술 지원과 함께 식량 지원 등도 이루어지는 정황이 확인된다.¹⁹ 양곡판매소에서 러시아산 밀이 판매되는 모습도

15 이시마루 지로, "시장에서 식량판매 전면금지."; 장슬기, "양곡판매소 오락가락 운영...1분기에만 세척 5번 바뀐 곳도," 『데일리 NK』, 2023년 5월 12일; 이재은, "해산 양곡판매소 판매량 제한 완화. 25kg씩 살 수 있지만," 『데일리 NK』, 2023년 6월 26일.

16 부족한 식량에 가격도 폭등... 북 주민 '아우성', 자유아시아방송RFA (2025.01.09.), <https://www.rfa.org/korean/news_indepth/north-korea-chronic-food-shortage-struggle-01092025133016.html>

17 김규철 (2021), 북한의 식량가격 결정요인 연구,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2021-06

18 임수호, 「배급과 시장의 충돌: 북한 양곡유통제도 변화의 정치경제동학」, INSS 전략보고 No.223 (2023년 10월), pp. 24-29.

19 신원식 "러 컨테이너 9천개 북한으로 넘어가...北식량값 안정", 연합뉴스 (2024.02.27.), <<https://www.yna.co.kr/view/AKR20240227070700504>>

김정은 정권의 식량정책 효과 평가: 가용량과 획득성 중심으로¹

박성열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식량정책이란 ‘정부가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정한 행동 방침’을 의미한다. 김정은 정권은 만성적인 식량문제에 대응하여 식량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식량정책의 목표는 표면적(1차적)으로는 인민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식량을 보장하는 것이며, 궁극적(2차적)으로는 김정은 유일권력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글은 김정은 정권의 식량정책이 과연 의도한 대로 그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평가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북한 주민에 대한 식량 보장은 공급 측면(국내 생산+외부 도입+재고)의 가용량(Availability)도 중요하지만, 주민 개인들이 식량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와 역량(Entitlement)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². 따라서 이 글은 먼저 김정은 정권이 추진해 온 식량정책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정책 추진의 효과를 가용량과 획득성의 두 관점에서 평가한 후 마지막으로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이 글은 “김정은 시기 식량정책 효과 평가-가용량과 획득성 중심으로-”(통일과 평화 16집 3호, 박성열, 정원희, 2024) 내용을 요약, 보완하였음을 밝힙니다.

2 기근 연구 권위자인 A.Sen은 기근 원인들이 기근 원인으로 가용량(availability)을 제기하는 데 대해, 개인이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개인적 역량과 권한이 중요하며 획득성(entitlement)을 제기하였다.



〈지난 2017년 러시아가 북한에 지원한 밀가루 800톤이 청진항에 하역돼 있다. (사진=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 페이스북)〉

보인다.²⁰ 그렇지만 이러한 지원은 당연히 장기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 국가 간의 정치 외교적 역학관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실제적인 식량문제의 대안은 개혁개방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결국 북한의 핵 개발과 이에 따른 대북 제재 등 북한이라는 국가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

다. 북한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경제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한계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희생을 강요받는 것은 지도층이나 핵심계층이 아닌 서민들과 취약계층이다.

북한의 농업과 식량문제에 대해 글을 작성하는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는 지방에서 겪고 있는 식량 부족 및 생활고에 대한 소식, 그리고 이들을 돕고 구제하기 위한 노력의 소식들이 들려온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주민들과 성도들에게 우리도 기도로 함께해야 할 것이다. 먼저 북한이 표면적으로만 이민위천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일어나도록, 그러한 계기가 하루속히 마련되도록 기도하자. 특별히 지방의 소외지역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 낮은 자리에 처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자. 세상에서는 외면받고 정책적으로 희생을 강요받는 처지이지만 우리 주님은 기꺼이 가장 낮은 자리를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하심을 믿는다. 우리 교회의 시선도 바로 그곳으로 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들을 돕기 위해 수고하는 여러 기관과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북한이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주민들의 삶이 개선되고 더 나아가 영적인 생명을 얻는 일에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을 요청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

20 “<북한내부>러시아산 밀가루 대량 유입된 듯... 량곡판매소 통해 정기 판매, 주요 광산에는 배급 현금 없는 주민들은 구입 못해”, 아시아프레스(2025.06.19.), <<https://www.asiapress.org/korean/2025/06/nk-economys/russian-flour/>>

2. 김정은 시대 추진된 주요 식량정책들

1) 1기(2011.12-2015), 권력기반 강화 및 식량증산 정책 적극 추진

김정은은 신속한 권력 장악과 함께 2013년 3월 당 전원회의에서 경제-핵병진노선을 채택하였고, 2013년 2월부터 2017년 9월 6차 핵실험까지 4차례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국제사회 제재를 초래해 경제 사정을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 북한의 식량정책은 식량 증산에 집중되어 있다. 2012년 6월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6.28 방침)’ 발표에 따라 시작된 농업개혁은 농장운영의 분권화와 농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생산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었다. 종전 10~25명 단위의 분조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4~6명 단위로 축소하였으며, 분조별 생산성 평가를 통해 차등분배 원칙을 도입하였다. 북한은 2014년 5월 30일(5.30 조치)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와 농장 책임관리제(분조관리제내 포전담당책임제)를 골자로 한 경제개혁 지시를 내려보냈다. 이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에 자율과 경쟁 요소를 상당부분 허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1〉 김정은 정권 1기 식량정책 기초와 주요 내용

일시	주요 내용
2012.4.6. 김정은 담화 (4.6 담화)	- 당의 위상 강화와 유일적 영도 체계 수립 강조 -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 해결’을 선결과제로 제시
2012.6.28. 새경제관리체계(6.8 방침)	- 협동농장의 작업분조 규모 축소, 개별화된 영농구조로 변화 - 농업생산물 배분에서 국가 대 생산자 간 7:3 비율 적용
2014.2.7. 전국농업부문 분조장 대회 김정은 서한	- 농촌테제 발표 50주년 기념 농촌의 사상, 기술, 문화혁명 강조 - 알곡 중심으로 농업생산구조 변화, 쌀과 옥수수 재배면적 확대
2014.5.30. 우리식경제관리방법 (5.30 방침)	-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농장책임관리제 제시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주의농업지도체계 추진

2) 2기(2016-2020), 대북 제재속 정면 돌파와 자력갱생 강조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당-국가체제가 공식화되면서 김정은의 유일영도체계를 수립하였다.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6월 싱가포르 북미 회담, 9월 평양공동선언 등으로 이어진 북한 비핵화 논의가 성과를 보는 듯했으

나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었다. 북한은 2019년 12월 당 중앙위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통해 ‘정면돌파’ 노선을 선택, ‘자력갱생’을 천명하였다. 2019년 12월 농촌테제 발표 55주년 계기로 농업발전 5대 요소(종자혁명, 과학농사, 새땅 찾기, 저수확지에서 증산, 당적 지도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농업생산에서 경험주의, 주관주의, 관료주의, 형식주의 등 소위 ‘넓은 사업작풍’을 없애고 농업생산의 혁신을 일으킬 것을 내세우고 있다.

〈표 2〉 김정은 정권 2기 식량정책 기초와 주요 내용

일시	주요 내용
2016.5. 제7차 당대회	- 주체농법 요구대로 과학농사열풍 전개 -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 영농공정의 기계화
2018.1.1. 신년사	- 우량종자와 다수확농법, 능률적인 농기계 적극 도입 - 과학농사 및 축산물, 과일, 온실채소, 버섯 생산 증대
2019.1.1. 신년사	- 사회주의분배원칙 집행 강조 - 농장원의 개인부업 축산 장려
2020.1.1. 당 중앙위 제7기 5차 전원회의	- 농업발전 5대요소(영농과학기술, 농자재보급, 농업인프라 개발 및 보호, 증산영농, 증산경쟁) 추진 - 농업 부문 총화(식량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주의 강국 건설)

3) 3기(2021-2024), 수령영도체제 완성과 국가 주도 식량문제 해결 강조

2021년 제8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명실상부한 수령영도체계를 구축하였다. 8차 당대회에서 낙후된 농촌의 현실을 지적하고 농촌과 지방의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대책들이 논의되었으며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건설 강령’이 발표되었다. ‘새 시대 농촌강령’은 농민들을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 ‘지식형 농촌 근로자’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5개년 계획기간 동안 식량문제 해결과 함께 2~3년내 국가의 수매계획을 점진적으로 높여 식량 공급을 정상화하겠다는 조치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국가의무 수매계획을 높이는 정책은 농장원들의 분배 몫을 줄이며 그간 추진해 온 농장운영 자율성 및 농장원 생산 의욕을 독려해 온 기존의 농업개혁정책과 상치되고 주민들의 식량 획득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협동농장의 알곡 구성에서 1순위인 국가의무 수매몫이 높아지면 2순위와 3순위인 농장자체 조성곡과 농장원의 식량

분배 몫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시장에 유출되는 식량 규모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표 3〉 김정은 정권 3기 식량정책 기조와 주요 내용

일시	주요 내용
2021.1.5.-12.8차 당대회	-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부진 인정 - 국가수매량 확대를 통한 식량공급 정상화
2021.12.27.-31. 당 중앙위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 새 시대 농촌강령 발표 -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 기반조성, 농업부문 역량 강화 -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농민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대책 강구
2022.1.28.-30. 농업근로자동맹 제9차 대회 서한	- 농업생산 증대를 위한 투쟁, 3대혁명(사상, 문화, 기술) 강조 -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 발전' 강조
2022.12.26.-31. 당 중앙위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 농업생산에 과학기술을 적극 도입 - 농업기계화와 농촌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
2024.6.28.-7.1. 당 중앙위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내각 확대회의 포함)	- 사회주의 농촌 진흥 가속화 - 물 부족 논, 가뭄, 침수 피해 극복 및 관개공사 - 12개 중요 고지 점령을 위한 생산공정 정비 보강

3. 북한 식량정책의 효과 평가

1) 가용량(Availability) 측면

가용량은 국내 생산과 외부 도입(수입+국제사회 지원)으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김정은 집권 이후 식량 생산량은 최저 439만톤(2020년)~최고 482만톤(2023년)으로 비교적 일정하다(〈표 4〉). 이는 김정은 집권 전 10년간(2001~2011년) 생산량(2001년 최저 396만 톤, 2005년 최고 453만 톤)에 비해서는 증가한 것이나, 집권 초기 생산량이 늘었다가 중기에 떨어지고 2023년 다시 오름세를 보이며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식량 생산량 수준은 주민 생존에 필요한 양을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며,³ 김정은 정권의 식량정책의 한계를 나타낸 것이다. 획기적 식량 생산을 위해서는 농업 연관산업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나, 자력갱생을 내세우며 체제 우선 순위인 국방공업에 국가적 자원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3 FAO 기준 1인당 연간 소비량 175kg(일일 소비량 480g/인, 하루 1700kcal.)을 고려하면 북한 인구(2650만 추산)의 1년 식량 소요량은 465만 톤이다. 여기에 사료용 17만톤, 종자용 21.3만톤, 가공과 저장과정 손실분 100만 톤을 산정하면 통상 100만 톤 넘게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4〉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의 국내 식량 생산량(출처: 북한통계포털)

시점	생산량 (천톤)	증감률 (%)	시점	생산량 (천톤)	증감률 (%)
2012	4,676	-	2013	4,806	2.8
2014	4,802	-0.1	2015	4,512	-6.0
2016	4,823	6.9	2017	4,701	-2.5
2018	4,558	-3.0	2019	4,640	1.8
2020	4,398	-5.2	2021	4,692	6.7
2022	4,505	-4.0	2023	4,820	6.9
2024	4,780	-0.8			

다음으로 식량 수입과 외부 지원은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자체봉쇄로 규모가 급감하였다가 2022년부터 회복되는 추세이다. 식량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중국 곡물 수입은 2020년부터 시작된 봉쇄 여파로 2021년에 2만톤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가 2022년 회복세를 보여 13만 6천톤, 2023년 약 27만 8천톤을 수입하였다. 북한은 러시아에서 2023년 3월 옥수수 2,800톤, 4월 밀가루 1,280톤, 5월 밀가루 1,300톤 등 3~5월간 5,380톤의 곡물을 수입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 러시아로부터 식량 도입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김정은 정권 기간 대중국 곡물 수입량(출처: 북한통계포털)

시점	생산량 (천톤)	시점	생산량 (천톤)
2012	281,633	2013	298,257
2014	161,271	2015	47,601
2016	52,276	2017	169,531
2018	238,976	2019	411,394
2020	113,782	2021	20,713
2022	136,790	2023	278,765
2024	72,505		

2) 획득성(Entitlement) 측면

북한에서 주민들이 식량을 획득할 수 있는 주요한 경로는 배급을 포함한

공적분배체계(PDS: Public Distribution System)와 시장이다. 먼저, 공적분배체계는 노동당, 국가기관, 군대 등 체제 유지에 필수적 기관과 그 가족 대상 기본 배급을 실시하고 기업소, 공장 등은 책임 경영제를 통해 자체적으로 식량을 구매해 소속 노동자들에게 분배하거나 현금, 현물 형태로 지급하고 있으며, 대상은 인구의 70% 정도로 추정한다. 이러한 공적분배체계는 배급과 기업소, 공장 등을 통한 공적 분배를 포괄하는 것으로 주민들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최소 수준에서 공급하는 형태로 작동하고 있다.

통일부(북한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2024)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첫 해인 2012년 이후 배급 경험 비율은 32.9%이며, 2016~2020년에는 26.8%로 소폭 하락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평양에서 배급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60.9%로 접경지역 33.9%와 비접경지역 30.1%에 비해 두 배 높게 나타났다. 신분 및 직업별 식량 배급 경험은 농장원의 경우 48.5%로 배급 경험이 높은 편이지만 노동자와 특수 직종 종사자는 37.1%와 37.3%로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다. 종합해 보면, 김정은 정권 후반기로 오면서 전체적 배급 대상은 줄었으나, 배급 대상인 권력 엘리트층에는 과거보다 일관되게 배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배급에서 소외된 평양 이외 지역과 노동자 중심 임금 소득자들의 식량 획득성이 취약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북한은 8차 당대회(2021년 1월) 이후 식량 구매 단계부터 당국의 양곡 전매제를 시행하고 곡물의 사적 유통을 금지하며, 구매·판매 가격을 현실화한 '신 양곡정책'을 단행했다. 이런 조치는 생산계획 수립-구매-분배의 전 과정에 대한 정권의 장악력을 강화하고 양정 관리들의 부패를 차단하며 주민들에게 싼 값에 식량을 제공한다는 명분이 있으나 곡물의 시장 유통을 차단하여 주민의 식량 획득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다음으로, 시장은 1990년대 이후 주민들이 식량을 획득하는 주요한 통로로 기능해오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공식 시장은 2022년 총 414개로 추정된다. 통일부 보고서(전게서)에 따르면 입쌀과 강냉이를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 2011년 이전에는 시장(64.8%), 텃밭, 돼기밭(19.5%), 양정소 배급(1.8%), 소속 직장, 농장 배급(6.0%)이었으나 2012년 이후에는 시장(70.5%), 텃밭, 돼기밭(20.8%), 양정소 배급(1.2%), 소속 직장, 농장 배급(4.0%)을 보여 김정은 시기 시장을 통한 식량 조달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장에서 식량교환 획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이 필요하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시장화가 더욱 진전되면서 주민들의 주된 소

득원이 직장을 통한 공식 소득보다 시장 경제활동을 통한 비공식 소득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여유자금 보유 비율에 있어 2011년 이전에는 16.8%였으나, 2012년 이후에는 43.7%로 급상승하여 김정은 집권 이후 시장 확산에 따른 비공식 소득이 증가하였음을 나타내고 이는 가계의 식량 획득성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김정은 시기 식량 획득성 차원의 개인 재산은 시장을 통한 비공식 소득과 여유 자금 및 외화 보유 비율이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주택, 종합시장 매대를 매매할 수 있으며 다양한 개인 기업 등장 및 소토지를 사유재산처럼 이용할 수 있어 전반적으로 시장을 통한 식량교환 획득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사적 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장이 미비하고 북한 당국의 시장 통제를 감안할 때 언제든지 개인 재산권 행사가 불완전할 수 있고, 시장경제에서 소외되는 빈곤층 및 지역적으로 평양 이외 지역, 장애인, 노령층, 돈 없고 연줄 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식량 획득력은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평안남도 안주에서 식량을 배급 받는 주민들 (사진=VOA)〉


4. 결론 및 시사점

첫째, 김정은 정권의 식량정책은 획기적 증산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민 식량 보장과 체제유지라는 의도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용량 측면에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시장을 통한 주민의 식량 획득성이 나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 시대 농촌강령 등 주요 정책의 구체적 성과가 뚜렷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농업 생산성 제고에 필요한 내부 개혁과 대외 개방에 한계가 분명해 북한의 식량문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김정은 시기 분배체계 개선은 특권층 중심 배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권력을 떠받치는 특권층과 평양 중심 특정 지역 지지를 확고히 하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권층에 집중되고 일반주민을 차별하는 정책효과가 누적되면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김정은 정권에서 식량 가용성과 획득성은 현상을 유지하거나

개선되어 온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취약층이다. 배급 대상이 축소되고 시장을 통해 식량을 획득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직장 내 임금을 받지 못하는 하층 노동자, 시장 활동에서 소외된 노령층, 고아, 장애인 등 돈 없고 연줄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시사점으로는 남한과 유엔 및 국내외 민간 단체는 북한 식량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상 파악을 우선하면서, 식량문제가 기근과 사망, 만성적 영양 부족을 초래하고 식량권이 인권의 핵심이라는 점을 감안해 북한내 취약층의 식량권 보장에 공동으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이 농업 분야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술 지원, 개발협력을 확대함이 바람직하며, 제도적 차원에서 국제기구가 주도하고 남북한의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한반도농업협력기구’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하겠다. 

최근 북한의 농업 정책의 변화와 그 의미

조충희 ((사)굿파머스 본부장 / 북한학 박사)

1. 들어가며

최근 북한은 부족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이른바 “주체농법”을 위주로 자립형 작물재배를 통한 농업생산 증가를 과제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이 이처럼 농업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먹는 문제 해결 없이는 주민 생활 안정 및 경제 희생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분간 농업 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계속 주력해야 할 사업임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농업 정책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방지 농작물 재배 방식, 시장 적응형 농장 경영 방식의 개발과 도입으로 농민의 책임 의식 제고를 통한 농산물 생산 증가, 정부 중심의 농산물 수매와 공급 등을 위한 식량 판매시스템 등 시장 변화에 따른 농업 구조변화에 기반하고 있다.

최근 경직된 계획 경영에서 벗어나 상대적 자율성을 보이는 포전담당제도, 농장 경영 방식의 변화 등 농업 정책 변화는 있었지만, 소비자에 대해 적절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변화는 있었지만 실지로 그것만으로는 농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농민의 생활 수준 향상이라는 중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다. 그와 같은 목표들을 달성하여 농장과 농민이 제 몫을 찾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동당의 불필요

한 간섭과 강제를 배제하고 지역정책과 사회정책 등 다른 분야의 공동 성장과 연계한 적극적인 사회 구조 변화 정책이 필요하다.

2. 최근 농업현황

지난해 북한의 식량 수급에 대한 일부 기관의 평가는 2023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농촌진흥청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에서 생산된 식량 작물은 총 478만 톤으로, 2023년도 482만 톤보다 4만 톤(0.8%)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작물별 생산량은 쌀 215만 톤, 옥수수 161만 톤, 감자·고구마 54만 톤, 밀·보리 28만 톤, 콩 18만 톤 및 기타 잡곡 2만 톤이다.

국가통계청은 쌀 214.9만 톤, 옥수수 161만 톤, 서류 54만 톤, 계 429.9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군수물자와 병력 파견의 대가로 러시아산 곡물을 도입하여 일부 시장에서 러시아산 밀가루도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2024년도 북한 식량 작물 생산량

구분	단위	계	작물 생산량					
			쌀	옥수수	서류	보리	콩	기타 잡곡
단수	kg/10a	-	519	719	344	142	160	28
2024	만 톤	478	414	224	157	197	113	71
2023	만 톤	482	215	161	54	28	18	2
증감량	만 톤	-4	211	170	58	22	19	2
2020.1.1.	-	-	4	-9	-4	6	-1	0

※ 쌀: 정곡 기준(쌀 수량 = 조곡 × 0.72), 서류: 감자(생체중의 25%), 고구마(생체중의 30%)
 자료: 농촌진흥청, 2024. 12. 19.

3. 최근 변화된 주요 농업 정책

최근 북한의 농업 정책은 새로운 농정 기초를 계승·강화하는 한편, 정책의 목표와 과제를 비교적 명확히 했다. 2021년 12월 채택한 새 농업 정책 “새 시대 사회주의 농촌 건설 강령”의 수행을 위해 2022년 8월 “사회주의 농촌 발전법”도 제정, 했다. 농업성을 농업위원회로 승격하여 계획 농업을 실천화 하기 위한 관리와 지도체계를 갱신하고 수리 관개시설 정비, 농기계 공급, 영

농 과학기술 보급, 농촌 주택 건설 등 농업의 주요 부문별 목표와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 하기도 했다.

최근 변화된 주요 농업 정책은 첫째로 2021년 12월 노동당 8기 4차 전원회의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 건설 정책이다. 전원회의에서 농업을 ‘정면 돌파전의 주 타격 방향’으로 정하고, 생산계획과 실적에서의 ‘허풍 일소’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농업생산의 증가를 위하여 옥수수 재배를 줄이고 밀·보리 재배를 전국 파종면적의 30%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농업생산에서 품종 배치와 파종 시기의 합리적 조절 등 새로운 선진 영농 기술·방법의 연구 적용하며 앞선 단위들의 우수한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보급하는 사업의 광범위한 조직 전개, 과학적인 물관리 체계의 수립 및 물 문제의 해결, 재해성 이상기후에 제때 대처할 수 있게 기상관측 수단의 현대화, 축산 부문에서 초식가축(염소와 소, 돼지, 토끼 등) 마릿수의 결정적 증대, 전국적인 젓 생산량의 3배 이상 증대, 젓 가공 기술의 발전 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둘째로 농장(기업) 책임 관리 제도, 분조 관리제, 포전 담당제도의 도입이다. 2000년대 들어서 북한 노동당 농업생산의 지속적인 하락의 원인을 그 담당자인 농민들의 책임성이 결여에서 찾았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협동(또는 국가)적 소유제도 내에서 개인들의 책임을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분조관리제, 포전담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셋째로 고리형순환생산체계, 축산 전문 농장(경영위원회)을 통한 농산업과 축산업의 동시 발전 정책이다. 이는 2013년 전국 분조장 대회에서 발표한 농업 정책으로 산지가 많고, 경지면적이 부족한 현실과 화학 농법과 밀식재배, 옥수수재배 면적의 증가로 지력이 감소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도로 북한의 농업 현실을 비교적 정확하게 보고 제시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가축분뇨로 토양미생물 상태를 개선하고 지력을 올리며, 동시에 농가소득을 올리고, 가축사육 증가로, 단백질 공급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다.

넷째로 밀보리 재배면적 증가 정책이다. 옥수수재배를 줄이고 밀·보리 재배를 당시 전국 파종면적의 1.9%에서 30%로 전환하는 것이다. 옥수수 파종면적을 줄이고, 밀·보리 면적을 증가로 정책 전환한 것은 옥수수재배에 의한



〈평안북도 룡천군 장산협동농장의 모내기 모습. (사진=노동신문)〉

토양의 악화를 방지하고, 농산 작업의 기계화를 실현하며, 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줄이고, 지속해서 늘어나는 밀가루 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분석된다.

다섯째로 식량판매소에 의한 식량 판매시스템 강화로 곡물 유통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시작한 것이다. 2000년대 초 북한 당국은 경제난으로 배급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고 시장이 식량 공급 기능을 대체하기 시작하자 식량 배급소를 식량판매소로 전환하였지만, 곡물 부족으로 정상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4. 농촌의 균형 발전을 위한 대안

북한의 농업 정책은 농장 구조와 경영 방식을 개선하여 강냉이에서 밀보리로 재배면적을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실질적 투자와 지원은 지방에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농장과 농민의 소득 증가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농업 부문의 구조를 개선하고 농장과 농민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발표된 정책은 대부분 자력갱생과 지방, 농장, 농민의 성장과 발전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단위 책임이 강조된 것은 1960년대 초 군(郡)을 단위로 농촌경영위원회가 조직되면서부터이며 농업·농촌 지역의 생존과 곡물 생산 증가로 식량자원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0년대 중반 경제난이 도래하고 중앙의 지원이 감소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농촌에 대한 지원은 군 인민위원회와 농업경영위원회로 되었고 최근 2021년 9월 제정된 “시, 군 발전법”에서 “시, 군은 농촌 경리와 지방 경제를 지도하는 지역적 거점”으로 규정하고 제힘으로 성장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장법, 농업법, 시, 군 발전법 등의 제정으로 농장들은 농촌 지역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수단을 선택할 수 없고, 농촌진흥의 정도는 지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소유권의 경직성으로 농장들은 하나의 통합된 농촌 건설 규제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북한에서 농업 성장 정책은 시장과 농장 운영의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농업 성장 과정이 시장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는 최근 농장 경영에서 두드러지고 있지만, 전망적으로 농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생산과 가격의 분리, 농업지도기관과 농장·농민의 상호 준수 조성을 통한 균형 달성 등의 방식을 통해 시장 이용이 본격화되어야 한다.

시장과 농장의 균형을 위한 방향은 첫째로 농장과 농가의 기본적인 소득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여 자유로이 생산·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시하여야 한다. 둘째로 농장·농민이 식량생산 본연의 기능과 환경보호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공공재를 공급하는 과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농업 성장 방향은 농축산물의 품질과 토양의 질 개선을 위해 가축 후생을 향상하고, 농민들이, 시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수단의 도입, 주택, 상하수도, 전기통신, 이동시설 등 농촌시설에 대한 직접 지급을 증가하는 데 필요한 농업 성장을 위한 자금 투자의 방식을 다변화해야 한다. 농산과 임업, 축산의 융복합으로 농촌 경관을 유지하고, 농장과 농민이 실질적인 자생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와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하여 조건이 불리한 동해안·북부 내륙 지역과 서해 곡창지대 농촌에 투자함으로써, 이들이 농업의 직접적 담당자로 다원적 기능을 이행하고, 북한 전 지역 농장이 시장 지향적인 생산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농업부문 구조조정, 농촌 지역의 지속할 수 있는 개발,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 잡힌 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국가와 지역, 기업, 개인들이 참여하여 농촌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첫째로 다각화된 광의 농촌을 건설하는 것이다. 농·축산물 생산 증가에만 의지해서는 더 이상 농촌 지역을 발전시키기 어렵다, 농업 생산 부문 내부만이 아닌, 외부의 투자를 통해 다각화를 병행하는 것이 자생력 있고 지속성 있는 농촌 공동체 유지의 필수 조건이다. 둘째로 공공 서비스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북한의 농촌 지역에서 공공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농업을 대체할 고용 수단 부족, 자원 부족으로 인해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이 크게 위축되고 있고, 특히 여성과 젊은 인력들의 기회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셋째로 한반도 농업의 지속 가능한 경제·환경·사회 발전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농업 성장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정책은 참여 주체들의 지역, 농장 직접 참여형 접근 방식을 이용하여 상향식의 지역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농업 성장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면서 공공부문·민간·농장 간의 파트너십이 이루어져야 하며 노동당은 여기서 빠져주어야 한다. 지역의 요구를 적절히 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부문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남한보다 2배 이상 농지를 가진 북한은 왜 굶주릴까

이민복 (전 북한과학원 농업연구원, (사)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살 빼기 하는 남한 사람이 보건데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은 농업 조건이 모두 나쁜 줄로 알고 합니다. 산이 많아 농지도 적고 종자도 나쁘고 기후도 추워서 농사가 안된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남한보다 훨씬 좋은 농업 조건이라고 한다면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제 경력부터 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농업대학 연구소, 국가과학원 산하 토양학 연구소, 발작물 연구소, 강냉이 연구소 연구원, 그 외에도 도 농촌 경리 위원회, 군 협동농장 경영 위원회의 현지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람되지만 저처럼 북한 농업 분야에서 교육계와 과학계, 현장 경력 등에 골고루 종사해 본 사람은 남한에서는 물론 북한에서도 찾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이 많이 내자면 뭐니 뭐니 해도 농지가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농업 생산의 3대 조건 즉 농지, 종자, 기후에서 농지를 가장 첫째로 꼽습니다.

북한의 1인당 농지 면적은 남한의 2배 이상입니다. 북한의 농지 면적은 약 200만 정도, 남한은 153만 정보입니다. 북한은 남한에 비해 1.3 배나 농지 면적이 더 넓은 셈입니다. 대신 인구는 절반도 안 되니 농지 규모가 1인당 2배 이상이나 많은 것입니다.

〈표 1〉 북한과 남한의 경지 면적

(단위: 천 ha)

시점(년도)	북한		남한	
	경지면적	재배면적	경지면적	재배면적
2019	1,910	1,862	1,581	924
2020	1,891	1,846	1,565	906
2021	1,910	1,863	1,547	905
2022	1,910	1,882	1,528	904
2023	1,933	1,893	1,512	893

〈출처: 통계청〉

다음은 농업 생산의 3대 조건 중 두 번째인 종자 수준을 비교해 봅시다.

2대 농지 작물은 벼와 옥수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남북한의 벼 종자 수준은 같고 옥수수 종자는 북한이 앞서 있습니다.

1970년 초 남한에서 "통일벼"로 식량문제를 해결했다고 했을 때 그 종자는 벌써 북한 농업과학원 벼 연구소에 와있었습니다. 북한 벼인 "룡성"과 3년간의 반복 시험 결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옥수수 종자는 남한 것이 낙후하여 비교할 것이 없었습니다. 우수한 옥수수 종자는 1대 잡종이나 아니냐로 판단합니다. 남한은 1979년에야 "수원 19호"라는 1대 잡종 종자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김순권 박사의 슈퍼 옥수수란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이런 수준의 1대 잡종인 "갱신4호"를 1974년 전국에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농업의 3대 조건의 마지막 - 기후를 놓고 남북을 비교해 봅시다.

그리 큰 나라가 아닌 한국의 남과 북은 기후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위도가 높아 추워서 농사가 안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있을 수 있는데, 북한보다 훨씬 위에 있는 중국 만주에 가보면 만주에서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농업 생산의 3대 조건은 남한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정도로 농사가 안될까요? 이것이 젊디젊은 연구원이었던 저에게 놓인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젊은 만큼 탐구성과 진취성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남들이 국가 연구 과제 두세 개를 하는 것도 찢찢매 매 저는 27개를 수행하기도 했습



〈평안남도 안주시 학생들이 모래기 동원 캠페인을 벌이는 모습〉

니다. 이런 제 열정의 끝은 이런 질문에 이르게 했습니다. 제가 연구해 낸 옥수수 종자 생산능력이 100%라면 왜 농민들은 10%밖에 성과를 못 내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음의 탐구심과 열성으로 과학원 책상머리를 떠나 생산 현장에 나갔습니다(1985년).

현장의 농민들은 생산한 것이 내 것이 되고 개인농이면 식량난은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데이터로 말하는 과학자로서 저는 량강도 김정숙군 풍양리 5반에서 시험을 해 보았습니다. 1정보당 1톤 정도 옥수수의 소출이 나는 공산농밭을 개인농으로 하니 7톤이 증산되었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나 높은 수치 앞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공산농 밭은 급락하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살펴보니 평당 30포기 심은 옥수수가 가을에 11포기 남아 있었습니다. 내 것이 아닌 지겨운 농사일을, 그것도 농민도 아닌 학생, 노동자, 군인들을 농번기에 총동원한 결과입니다. 봄에 평당 30포기 심은 것이 가을에 11포기 남았으니 이미 3분에 2가 사라진 것입니다. 게다가 남은 옥수수마저 잡풀 속에, 그것도 병해충 피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개인농의 그것에 비해 7분에 1로 소출이 극감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저의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인농은 수정주의’, ‘반동’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고난의 행군이라는 최악의 기근을 맞이합니다. 3년간의 6.25전쟁으로 남북한이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으로도 거의 동일한 숫자가 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1997년 탈북한 중앙당 황장엽 비서의 증언입니다. 중앙당 내부 보고자료와 추산에 의하면 300만 명 아사라고 했다 합니다. 전쟁도 아닌 평화 시에, 그것도 북한 한쪽에서만 6.25전쟁 때만큼 죽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전쟁보다 더 무서운 파괴라고 감히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김정일은 저에게 변화를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죽은 김일성 시신 보관

과 미사일, 핵 개발에 돈을 썼습니다. 같은 공산당 국가인 중국이나 베트남은 개혁개방으로 경제적으로 천지개벽시켰던 것을 본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 우상 정권은 권력 유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주민들을 굶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북한의 공산주의는 가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주민들은 인권의 억압,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요, 물질적으로도 1달러 미만의 월급에 자기 것을 가질 수 없는 노예의 삶을 살아갑니다. 현재 북한의 경제력은 남한의 고흥군 경제력밖에 안 됩니다. 소련 시대 총 경지면적에 비해 개인농인 다차(별장)의 면적은 1%였지만, 생산성은 소련 총 농산량의 25%를 차지했습니다. 공산 동독에 비해 자유 서독은 10배 가까운 경제력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남한에 와서 수원 농업시험장에서 세미나를 했을 때 담당자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농민들은 연구원이 연구한 것에 몇 프로나 따라오나요?” 담당자는 농민들이 90%는 따라온다고 한다. 돈이 되는 것은 연구원보다 더 성과를 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수고의 몫이 내 것이 아닌 북한은 10% 남짓 따라온다면, 내 것이 되는 여기는 90% 따라오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새삼 이렇게 노예와 자유인의 생산성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김정은 시기 들어서 북한은 시장을 접목한 개인농의 영역을 일부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다시금 국가 통제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농사에 필요한 비료와 농기구, 자재 등은 외부로부터의 수입이 없이는 충분히 충당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빈곤을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절실합니다.

저는 대북 뼈라를 통해 진실을 알게되었고 이는 탈북에 결정적 계기가 되



〈러시아의 간의 별장인 다차(Dacha)와 그에 딸린 텃밭의 모습. 구 소련 시절 무료 할당지에서 자급자족할 곡식을 가꾸던 데에서 비롯되었다. 현재도 러시아인의 절반 가까이가 시골에 집이나 농장 혹은 정원 터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사진=콩나물신문)〉

1 러 사진작가 새벽부터 발 가는 이유... "치솟는 식비, 대참사", 머니투데이(2022.07.26.),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72513472255586>>

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자유케 한 은혜를 북한동포에게 돌려주려 민간인 최초 대북전단 원조가 되어 활동해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남한 출신이셨지만 평등을 쫓아 월북하셨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인 저는 자유를 찾아 탈북하여 남으로 왔습니다. 호남벌이 있는 익산이 아버지의 고향인데 여기서는 너무 많이 생산되어 골치 아파한다고 합니다. 김일성은 쌀은 공산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런 식이면 남한은 이미 공산주의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남로당 간부였던 아버지께서 공산화하려던 고향 마을에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장 32절)는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구체적 생활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수기

황폐한 그 땅의 소망, 그루터기(10)

김 열 매 성도

제가 처음 중국에 와서 몸무게를 재어보니 37kg밖에 나가지 않았습다. 뼈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초라한 모습이었기에 이대로 밖에 나갔다가는 바로 북한에서 온 사람이란 것이 알려져 잡혀가게 될 것이라며 목사님께서 한 달 정도를 집에서 지내면서 치료를 받고, 몸을 회복한 후에 한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목사님 집에서 지내며 치료를 받고 보약을 먹으면서 몸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고 주일에는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 중국 조선족 교회에 가던 날이었습니다. 목사님을 따라 교회에 가는 길에 교회 건물이 보이자, 목사님께서 손으로 십자가를 가리키시며 “저 십자가가 보이는 곳이 우리 교회다.”라고 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도 이런 교회를 다시 보고 싶으셨을 텐데...’라는 생각과 지나온 세월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면서는 말씀을 이렇게 소리내어 읽고 들을 수 있고, 찬송도 큰 소리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다는 생각에 감사와 감격이 섞여 그저 하염없이 울기만 하다 돌아와야 했습니다. 북조선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자유로운 예배와 풍성한 식탁 덕분에 저의 영과 육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하게 살이 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반을 목사님 집에 머물다가 드디어 한국으로 가기로 했습

니다. 우리 가족 말고도 다른 북조선 사람들과 함께 한국행 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중국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집중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어머니와 오빠가 다니던 교회 성도님들께서도 브로커 비용을 마련해 주셨고 무사히 도착하기까지 집중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길을 나서서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거쳐 한국 대사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국정원과 하나원을 거쳐 교육을 받고 한국 사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길에는 차가 너무 많이 다녀서 언제 길을 건너야 할지를 몰랐고, 한번 밖에 나갔다가 하면 집에 다시 돌아오기까지 실컷 헤매기 일쑤였습니다.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정리하고 돈을 찾아 쓰는 법도 몰라 헤맸으니 얼마나 웃기는 에피소드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이 사회에도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하나원에서 나와 그 주 주일에 어머니가 다니시던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국에 도착해서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처럼 눈물이 쏟아져 예배 시간 내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하여 그 은혜에 벅차오르는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서 그때와 같은 감격이 많이 사라졌음을 느낍니다. 그때의 감격을 생각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남편도 처음 한국에 와서 저와 함께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후 종종 교회에 한국 성도님들께서 저희 남편에게 이렇게 질문 할 때가 있었습니다. “장 집사님은 북한에서 주체사상을 가르쳤는데 여기 한국에 와서 하나님이 믿어지던가요?” 그때마다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저 북한에서는 아이부터 죽기 직전의 어른들까지 다 소속이 있고 무조건 조직 생활을 해야 했기에 한국에서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줄 알았지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직 생활을 할 거면 아내가 다니는 데서 하자’라고 생각해서 제가 다니는 교회를 따라다녔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남편은 하나원에서 천주교나 불교 그리고 기독교까지 모든 종교를 접해보았는데 가는 곳마다 먹을 것을 주고 필요한 것을 주니 그저 다 좋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따라나섰다는 남편의 말에 웃음을 터트렸지만, 저는 이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하나님 앞에 앉히시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은 주체사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인으로 지금까지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가끔 저희가 서로 티격태격하게 되어 ‘교회 안 갈래’라며 겁을 주다가도 주일이 되면 가장 먼저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면 저보다도 더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정말 돌이켜 보니 모든 것이 하나하나 주의 은혜임에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며 살 때가 많아졌음을 회개합니다. 저희 가정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저의 삶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이겨낼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의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고난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로마서 5장 3~4절)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인내함을 이루게 하시고, 연단을 통해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며, 이 땅이 아닌 저 하늘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의 자녀들이 고난 당함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피난처를 예비해 주시며 그 생명을 보존케 하십니다.



북한 땅에는 핍박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풍요의 땅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살아보니 물질의 유혹 또한 핍박과 동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핍박이 영혼을 깨우고 세워준다면, 물질적 풍요는 우리의 영혼을 깊은 수렁에 까지 잠들게 합니다. 항상 말씀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순간의 유혹에 넘어지게 한 후 세상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화려한 빛이 아니라 주님 말씀의 빛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함께 주재님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땅에도 하나님이 아껴 보호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은 저 북한 땅을 오래 오래 기다리심은 그 땅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 24~3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인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러 합니까?'라는 질문에 그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포악하고 잔인하고 우상숭배로 가득 찬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 보호하고 계시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와 같은 주님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풍요로운 땅에서 내 배가 부르다고 형제의 땅,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에 '네가 형제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시면 우리는 무슨 대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저 북한 땅에도 당신의 자녀들을 강하신 손으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핍박 속에, 굶주림과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 북한의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고향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된 우리들이 기도할 때 분단된 70년이 넘는 세월이 가서지고 우리 주님께서 한 민족을 위해 분단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모두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신랑을 맞이하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면을 빌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가정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 중에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의 생각뿐인 이 마음속에 아버지의 생각을 주시고 우둔한
입술을 지켜주시어 아버지를 부르며 찬송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피난처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속에 늘 아버지를 찾으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오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이 몸에 건강을 주시어 겹겹이 오는 풍파들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헤쳐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시간과 때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심에 감사하고 나의 마음속에 또 이 가정에

평안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그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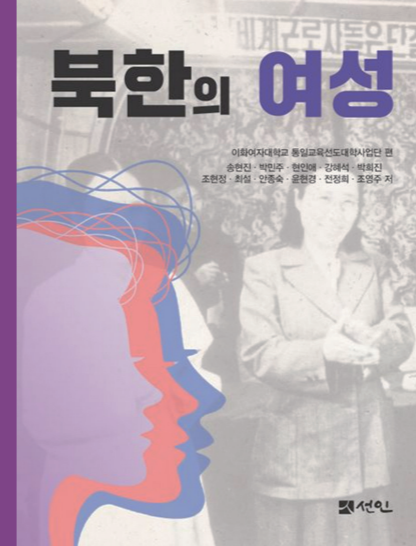
고난의 시간이 세상과 단절되었던 시간이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부를 수 있는 훈련의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로 인침받아 살게 하심을 감사,
나의 모든 것이 감사뿐입니다.

내 삶의 전부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끝)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 목: 북한의 여성
출판사: 도서출판 선인
발행일: 2024년 12월 31일
가 격: 30,000원

북한은 공산주의 이념에 따라 남녀 평등에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알려져왔고, 그래서 한 때는 남한보다 북한이 더욱 남녀평등적인 사회라는 인식도 있었다. 그렇지만 근래에 들리는 북한 사회의 모습에 따르면 상당히 가부장적이고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문화가 존재한다고 한다. 그리고 최근 경제 상황 변화로 장마당 활동의 주요 행위자인 여성의 경제적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회적으로 또 가정에서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북한 여성들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맥락을 알고 계신다면 그래도 북한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분일 것이다. 그렇지만 탈북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을 마주하노라면, 또 앞으로 북한 사회 변화의 중요한 역할을 할, 장마당의 주역인 여성들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여기에서 더 나아가갈 필요도 느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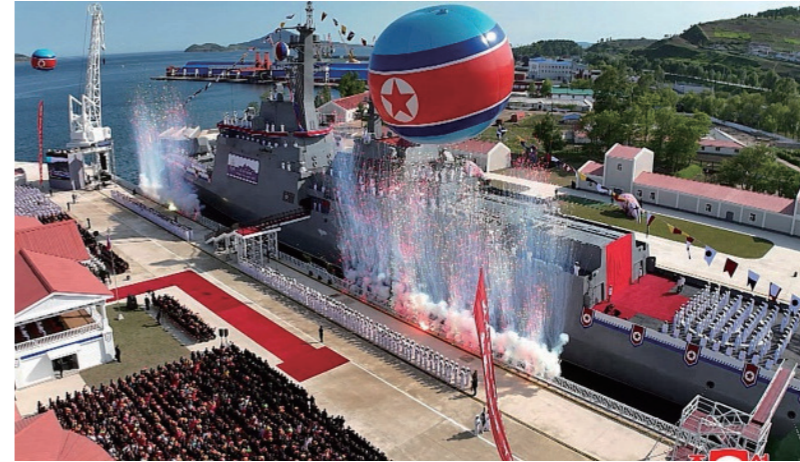
오늘 소개할 책 “북한의 여성”은 북한의 여성을 둘러싼 북한 사회의 다양한 맥락과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책이다. 이 책은 분단과 북한의 역사 속에서 북한의 여성, 여성 관련 북한의 법률과 적용 실태, 북한 여성의 진로, 가정생활, 조직생활, 여성 관련 보건 의료 시스템과 그 외 기념일이나 유행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북한 여성들의 삶을 조망한다.

이 책의 특징으로는 북한 여성들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 여성의 삶 전반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단순히 북한 사회의 성차별적 요소나 여성들의 어려움을 아는 것을 넘어, 그 이면의 배경 및 연관된 북한 사회와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도 넓힐 수 있는 내용과 구성이었다. 이와 함께 저술에 참여한 신뢰할 수 있는 저자들도 장점으로 다가왔다. 북한 전문 연구가들을 비롯하여 북한에서 살았고 직접 경험했던 탈북 연구자들이 여럿 참여하였는데, 이것이 이 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내용도 더욱 심도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 같다. 이 외에도 북한 여성들의 진로 및 교육, 기념일이나 유행 같은 내용은 북한 여성들의 삶을 더 깊게 들여다보는 느낌이 들어 유익했고, 북한의 여성 엘리트에 대한 내용은 주요 인물의 사진까지 곁들여 소개되어 있어 신선한 느낌도 들었다.

이 책을 덮으며 북한 여성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현대 북한 사회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북한의 여성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 문화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 비록 책의 분량이 상당하고 학업에 적합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 모든 독자들에게 쉽게 권하기는 어렵겠지만,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북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싶은 분에게는 유익한 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북, 좌초했던 구축함 ‘강건호’ 진수…사고 22일만



북한이 5월 21일 진수식 도중 좌초한 신형 5천 t급 구축함을 수리해 6월 12일 진수식을 개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6월 13일 “조선인민군 해군 구축함 진수기념식이 6월 12일에 라진조선소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 함정의 함급은 지난 4월 진수한 ‘최현급’이라고 밝혀 5천t급 구축함임을 확인했고, 함명은 ‘강건호’로 명명됐다. 빨치산 출신인 강건은 일제 강점기 때 만주에서 항일무장 투쟁을 했으며 정권 수립 후 초대 인민군 총참모장 겸 민족보위성 부상을 지냈고 6·25전쟁 때 전사한 인물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진수식 연설에서 지난달 사건에 대해 거듭 질타하면서도 해당 사건으로 교훈을 얻었다고 언급했다. 매년 동일한 급 또는 그 이상 급의 구축함들을 매해 두척씩 건조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북한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사실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청진조선소 현대화직장 제관 1작업반장 조금혁’이 순직했다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며 유가족에게 ‘사회주의애국학생증’ 수여를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딸 주애와 함께 구축함을 둘러봤다. 주애는 해군을 상징하는

흰색 정장을 차려입었으며, 일부 사진은 아버지보다 키가 더 커 보이는 각도로 촬영돼 위상을 짐작하게 했다. 한편 해군 사령관이 김명식에서 박광섭 상장으로 교체된 사실도 배포 사진을 통해 확인됐다.

북한 구축함은 5월 21일 청진조선소에서 열린 진수식 도중에 배 뒷부분이 물에 먼저 들어가고 뱃머리가 육지에 걸리면서 넘어졌다. 김 위원장은 사고를 직접 목격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6월말로 예고된 제8기 제12차 당 전원회의 전까지 수리를 마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참고: 연합뉴스, 6월 13일) 📖

러 “北, 러에 공병·군사건설인력 6천명 파견키로”



〈2025년 6월 4일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공병 병력과 군사 건설 인력 총 6천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6월 17일(현지시간) 밝혔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북한을 방문한 쇼이구 서기는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만난 뒤 러시아 매체 기자들에게 쿠르스크 재건을 위한 북한의 지원 결정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이 러시

아 영토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기 위한 공병 병력 1천명과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파괴된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한 2개 여단 규모 군사 건설 인력 5천명을 파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쿠르스크는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은 러시아 서남부 접경지다.

쇼이구 서기는 또 쿠르스크 전투에 참전한 북한군을 기리는 기념비를 러시아와 북한에 건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쇼이구 서기는 최근 러시아와 북한 간 직통 철도가 재개된 것을 언급하며 "30년 이상 날지 못한 비행기도 조만간 다시 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직항 항공편 재개 가능성도 언급했다. 또 8월 북한의 광복 80주년과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연합뉴스, 6월 17일) 🐟

IAEA총장 “北영변 새로운 핵 시설 보고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6월 9일(현지시간) IAEA 이사회에 북한 영변에서 평양 근교 강선 핵 관련 시설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 시설이 건설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교도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하고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강선에는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우

이 대통령 “남북 대화채널부터 신속히 복구… 대화·협력 재개”



〈6월 13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남북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였다.

이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인 6월 15일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4월부터 판문점 채널과 군통신선 등이 단절된 이후 남북 간 공식적인 대화 채널은 끊긴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몇 년간 한반도는 다시 과거의 냉랭했던 시대로 후퇴하고 있다”며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끊기고, 접경지역의 긴장과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낀다”고 언급하고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고, 남북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대화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각종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6월 11일 전방지역에 설치된 군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지할 것을 지시한 데 이어, 지난 6월 14일에는 관계부처에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관련 인사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두드러지고 있다. 국정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김대중 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 수행원으로 참여한 바 있는 인물이다. 통일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정동영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내며 당시 개성공단 사업을 이끌었다. (참고: 언론보도 종합) 🐟

라늄(HEU) 제조시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변에도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는데, 추가로 관련 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등은 이번 이사회에서 북한 핵 관련 활동에 우려를 표시하는 공동 성명을 낼 방침이다. 한국 외

교부는 이에 대해 “정부는 미국 등 우방국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 핵시설 및 핵 활동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일체의 핵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와 대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고: 연합뉴스, 6월 10일) 🐟

북한, 6년 만에 국제영화제 재개... 평양 관광상품도 판매



〈2019년 열렸던 제17회 평양국제영화축전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재인용)〉

북한 유일의 국제영화제인 평양국제영화축전(PIFF)이 6년 만에 재개된다. 6월 19일 평양국제영화축전 조직위원회는 올해로 제18회를 맞는 이 영화제가 오는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평양 일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영화제는 지난 1987년 9월 '블록불가담(비동맹) 및 기타 발전도상국가(개발도상국)들의 평양영화축전'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다. 2~3년에 한 차례씩 열리다가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탓에 2019년 가을 제17회 행사를 마지막으로 무기한 중단된 상태였다.

북한은 지난 4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했던 평양 국제마라톤 대회를 6년 만에 다시 열고, 이달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개장을 앞두고 등 침체한 관광업 부흥에 힘을 쏟고 있다. 영

화제도 관광이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외화벌이를 할 수 있다는 점과 예술을 통해 체제를 선전하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돼 재개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평양국제영화축전 공식 파트너사이자 중국에 본부를 둔 북한 전문여행사 고려투어는 영화축전 일정을 담

은 여행 상품을 출시했다. 관광객들은 평양 시민들과 평양 시내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으며 북한 영화 제작자들과 대화에도 참여할 수 있다. 북한 특유의 집단체조(매스게임), 평양지하철도, 북한이 1968년 나포한 미 해군 선박 푸에블로호, 주체사상탑 등을 둘러보는 시간도 있다.

프로듀서들과 바이어, 평론가 등 영화계 관계자들은 평양 대동강 변의 양각도국제호텔에 머물 예정이다. 고려투어는 다만 "1987년 영화축전이 시작된 이래 일본, 한국, 미국 영화 상영은 금지돼 있으며 그 정책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다"고 소개했다. (참고: 연합뉴스, 6월 19일) 

1 북한의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은 만성적으로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농업 정책 개편을 통해 식량 증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력갱생의 경제 기조 속에서 농업 생산 증대를 위해 필요한 시설 투자와 각종 자본재 투입은 제한적이어서 그 성과에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개혁 개방을 통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북한의 국정 방향과는 큰 차이가 있는 실정입니다.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북한이 표면적으로만 이민주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일어나도록, 그러한 계기가 하루속히 마련되도록 기도합니다.

2 북한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이 개선되도록 기도합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북한에 여전히 충분한 식량을 구하지 못하고 굶주리는 이들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특히 지방 소외지역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북한 당국은 식량 공급과 유통 전반에 걸쳐 국가의 장악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과 불평등으로 인해 지역과 계층에 따른 차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특별히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을 위해 기도합니다. 덧붙여 북한 주민들에게 육적인 필요와 함께 영적인 생명이 함께 공급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사역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3 최근 북한이 러시아로의 제3차 파병을 결정하였습니다. 러시아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파병은 공병·군사건설인력을 중심으로 6천여 명 규모로 알려집니다. 또다른 형태의 노동자 파견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북한은 이 외에도 중국 등 여러 지역에서 적극적인 노동자 송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 밖을 경험하게 될 이들이 바깥세상에 대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더 나아가 복음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들을 향한 창의적인 선교의 기회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북한 사람들과 접촉할 세계 각 지역 교회와 선교사들이 안전에 유의하는 가운데 지혜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4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간 단체의 대북 소통 창구 복구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대의 통일 유산을 폐기하고 적대적 두국가론을 내세운 북한이지만, 앞으로의 남북관계가 평화적으로 조성되고 군사적 긴장이 완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남과 북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위정자들과 의사결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독교 NGO들의 북한 사역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복음적 평화통일을 향한 진전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5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2025년 세계기독교박해지수(WWL 2025)에서 최악의 박해 국가 1위로 조사되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여전히 심각한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에서
선교를 위한 자료개발과 한국교회에 기도정보 제공을 위해
계간 “북한지역연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북한지역연구”의 온라인 버전은
홈페이지(www.opendoors.or.kr)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지역연구”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요청하기”메뉴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